

무등산 정상 개방 올해만 하고 끝?

공군 “신규 등산로 개설 안되면 더이상 못해” 광주시 ‘연례적 개방’ 서둘러 발표 혼선 빚어 환경파괴 우려 속 군부대 이전 목소리 높아

광주시민들이 내년부터 무등산 정상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한 공군 부대가 오는 25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정상 개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사실상 오는 25일이 마지막 정상 개방 행사인 셈으로, 광주시는 공군 부대의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에도 자의적으로 해석, 시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공군 부대 이전을 촉구하

는 목소리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70년대식 부대 운영만 고집하는 군의 융통성 없는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은 무등산 정상부(전왕·인왕·지왕봉) 신규 등산로(4km 가량) 개설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예정된 정상 개방행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정상 개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공군 본연의 임무인 영토수호를

위한 것으로 공군참모총장의 지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규 등산로 개설은 보안 및 부대 질서 유지를 내세워 정상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공군이 부대를 개방하지 않는 대신, 탐방객들이 언제든지 무등산 정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무등산 정상부 환경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공군이 신규 등산로 개설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더 이상의 정상 개방을 불허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정상개방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광주시 입장과도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군은 “신규 등산로 개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상 개방은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광주시가 왜 그런 자료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군 부대 관계자는 “올 가을 행사가 마지막이고, 신규 등산로 개설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상 개방은 없다는 게 공군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다음주 예정된 운영현 광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신규 등산로 개설을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상 개방 행사를 위해 추후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진행해왔던”면서 “환경 파괴가 뻔한데 어찌 군부대 안을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성평등 염원하며 박 터뜨리자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014 광주여성문화난장’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성평등의 염원을 담은 박을 터뜨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고속도로 안전사각지대...‘포트 홀’ 연 1만건 발생

광주·전남지역 주요 고속도로가 대형 교통사고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포트 홀’(Pot Hole·도로꺼짐)이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만 연평균 1만여 건씩 발생하는 한편, 터널 내 사고도 잇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 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포트 홀은 모두 4만 8688건이다. 연평균 9737건이 발생한 셈이다. 고속도로별로는 호남선(호남지선 포함)

이 1만7457건(유지보수 비용 17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88선 1만4138건(“ 33억7000만 원) ▲무안광주선 185건(“ 15억3000만 원) 등이다. 호남선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 27개 고속도로 중 ‘포트 홀’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

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지역과 연결된 고속도로(7곳) 터널 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모두 79건이 발생, 8명이 숨지고 7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고속도로별로는 남해선(순천~부산, 영암~순천구간)이 43건(사망 5명·부상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호남선 12건(사망 1명·부상 18명) ▲고창담양선 9건(부상 13명) ▲무안광주선 8건(부상 7명) ▲88선 3건(사망 2명·부상 10명) 등의 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

내달 초 완공 삼각동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가 보니

마을 편의시설 확충 등 약속 ‘흐지부지’ 인근 주민들 반발 움직임 속 ‘부글부글’

광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다음달 초 완공을 앞둔 가운데 광주교도소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또다시 감지되고 있다. 새 교도소 부지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전임 시장 등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약속을 내놓고 준공을 앞둔 현시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광주교도소 이전을 목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삼각동 삼각산 기슭에 새로 짓고 있는 광주교도소(용지면적 28만 6000㎡·9만여 평) 공정률은 96%로 다음달 초 완공 예정이다.

소에서 보안 및 운영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이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감지되면서 광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현재 가구 수는 40세대로, 주민 수는 120명가량. 이중 일부 주민들은 전임 시장이 교도소 내 산물 납품 및 취업, 도시가스 설치 등 약속을 해놓고 이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 공사 초기 공사장 진입로를 막는 등 광주교도소 이전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마을 주민 A씨는 “새 광주교도소 담장과 가장 가까운 세대의 거리가 20~30m에 불과하고 먼 곳도 500m 안팎”이라며 “전임 시장 등이 사업 초기 주민들을 위한 취업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모든 게 흐지부지됐다. 새 교도소와 가까운 일직지구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 교도소는 수용자 1인당 사용 면적이 2.58㎡(0.78평)로,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1.65㎡(0.5평)에 비해 1.5배가량 넓어지는 등 재소자(2000명~1500명으로 감소)들의 수용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교도소 측은 다음달 초 이전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뒤 새 교도

이준석 선장 “죽을 죄 졌다”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이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첫 공판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꾼 것이지만 핵심 혐의인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자 가족의 명예를 떼게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 심리로 8일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선장은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걸고 있고, 이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없다”면서도 “다만, 살인의 고의는 한순간도 품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가 아무리 잘 돕고, 신이 돕더라도 교도소에서 못 가가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지식, 손자에게 평생 살인자의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면서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했다. 이 선장은 변호사 질문에 “그 부분(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객실 안전다며 새벽 여관서 소란 피운 취객

○여관 주인이 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놓여 있는 컵 등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0)씨는 8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동D여관에서 여주인 이모(64)씨에게 객실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컵과 우편물을 발로 차며 심한 욕설을 내뱉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씨는 여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에서 “빈방이 있는데도, 여주인이 내 초라한 행색을 보고 방을 내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수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수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방/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등 제일 오피스텔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